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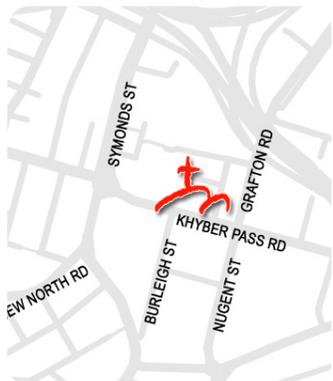
교회소식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공동체별 사진 촬영이 오늘은 차드와 베트남, 그리고 다음주는 바누와투와 캄보디아입니다.
2. 2020년 성경 정독 100일 운동이 시작 되었습니다. 말씀 정독의 감동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범위/ 사사기 5장-사무엘상 7장
3. 대심방 신청은 오늘까지입니다. 신청서에 장소(가정 또는 사업장)와 시간을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화, 목, 금요일, 신청서 본당 입구).
4. 공동체 인도자 성경공부가 다음 주일 예배 후 오후 3시 15분-4시 15분까지 있습니다.
5. 2020년 단기선교 준비모임이 다음 주 수요일(19일) 예배 후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일정과 장소를 결정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여 바랍니다.
6. 공동체 학습 방법 성경공부가 3월 첫 주일(2일)부터 있습니다. 신청 바랍니다. 과목/ 풍성한 생명, 신앙의 토대 일시/ 월, 화, 목 오후 7시 30분
7.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제직회가 있습니다.
8. 30, 40 세대를 격려하기 위한 모임이 오는 29일 (토) 오후 6시 30분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9. 2020년 교회 요람이 발간되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 금요 기도회가 오후 7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에 갈급한 성도는 누구든지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1. 등록된 성도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왕중모, 김영아 집사 (우진, 우영) 1/6 Owens Rd.Epson 021-0223-7479 3 남선교회, 2 여선교회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09 369 5077 / 021 968 388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2월 교회사역일지

2월 6일(목)
공동체 야외예배
2월 11일(화)
대심방
2월 16일(주일)
제직회
2월 23일(주일)
3040 주일
2월 26일(수)
공동체 주관예배(네팔)

2월 기도순서

2월 16일 (주일)
박덕철 장로
2월 19일 (수)
김순자 권사
2월 23일 (주일)
박병민 장로
2월 26일 (수)
김영옥 권사

2월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김석목, 김자경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A, 허영순,
박소진



해/외/한/인/장/로/교/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2권 06호

2020.02.09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14

예 배 시 간 안 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pm
청년예배 주일 3:15pm
수요예배 수 7:30pm
금요기도 금 7:00pm
유아부 주일 1:00pm
청소년부 주일 1:00pm

섬 기 는 사 람 들

담 임 목 사 이 태 한
부 목 사 이 성 철
부 목 사 이 성 훈

청 년 예 배

오후 3시 15분
금주기도
김다운 자매
다음주일
마현정 자매

주 일 예 배

1부 오전 11시 20분
2부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찬 양	-----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 요한계시록 3:20 -----	인도자
✧찬 송	----- 8장 -----	다함께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함께
찬 송	----- 270장 -----	다함께
대 표 기도	-----	김철재 집사
성경 봉 독	----- 창세기 3:14-19 -----	인도자
찬양대찬양	----- 겸손의 왕 -----	나무십자가찬양대
설 교	----- 타락한 인간은 2 -----	이태한 목사
찬 송	----- 435장 -----	다함께
헌 금 기도	-----	인도자
교 회 소 식	-----	인도자
✧응 답 송	----- 310장 (1,4절) -----	다같이
✧축 도	-----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수 요 예 배

오후 7시 30분

기 도	-----	김선화 집사
성경 봉 독	-----	누가복음 11:45-54
설 교	-----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	이태한 목사
찬 송	-----	419장
주 기도	-----	다같이

선교란

이번 주는 바누아투 정성욱 선교사 소식입니다.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희는 바누아투에서의 더운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직 낯설지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역들을 준비하며 더욱 말씀과 기도예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누아투 형제 자매들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심에 순종하여 현지의 필요에 따른 사역을 요청받을 때 기쁘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부족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릴뿐입니다.

바누아투 정부 기관의 요청으로 코반 간호학교에서 다음 주부터 3개월간 간호 훈련이 시작되어 훈련생들에게 신앙교육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믿음의 헌신 된 의료 인력들이 키워지고 지속적으로 훈련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빌라 노회의 요청으로 2월부터 지역 교회 주일 설교 일정이 잡혀있고, 현지 목회자들과 미자립 교회 발전을 위해 함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5명의 목사들이 협력하여 지역 교회들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북 말라쿨라섬 노회 서기 조셉 목사의 요청으로 2월 17일-20일까지 말라쿨라섬에서 4일간 현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리더십과 멤버 케어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전기를 사용하려면 발전기를 돌려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오고 가는 길에 날씨와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월 22-25일에는 방과 선교 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다락방은 지난해 총회에서 안건이 부결되어 협력관계를 요청하려면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번 주 뉴질랜드 다락방 사역자 부부가 남에파테 노회 서기 발루 목사를 만나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관련된 말라시타부 교회의 장로들과 바누아투 장로교 목사들이 물질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예 깊이 감사드리며, 늘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시는 복된 새해 되시길 바누아투에서 기도드립니다.

정성욱 김금숙 올림

기도 제목

- 하나님과의 신실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에큐메니컬 동역 선교를 잘 수행하도록
- 2월 리더십 강의(말라쿨라섬) 준비가 잘 되도록
- 주원이 대학생활 잘 적응, 예원이 고 3 생활을 건강하게 잘 보내도록.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진리를 지켜내며 생명을 살려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도록.
2. 말씀 읽기와 성경공부에 즐거이 참여하여 삶의 성숙을 가져오는 성도들이 되도록.
3. 신앙의 긴장을 늦추지 않는 성도, 병환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들이 되도록.

나눔란

2020년 2월 2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타락한 인간은> 창세기 3:8~13

기독교 변증가인 C. S. Lewis는 우리가 사탄을 무시해도, 지나치게 예민한 것도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는 타락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며 삽니다. 그렇기에 실수하지 않는 것 보다 실수한 것을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1) 하나님을 피합니다. 죄를 지은 후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3:8) 죄는 하나님을 피하게 하고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말씀과 기도가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가장 큰 착각입니다. 다윗이 평생 살아본 후 고백한 시편처럼 주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모든 행위와 내가 한 말까지 다 아십니다(139:2-4). 주의 앞에서 피할 곳은 없습니다(139:7).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피하고 숨어도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도망간 요나를 찾아가신 것처럼 하나님은 숨은 아담을 찾아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3:9).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관계를 회복을 위해, 용서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시편 1:1) 말씀하십니다.

(2) 변명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닌 벗었으므로 숨었다고 변명합니다(3:10). 이것은 죄의 본질은 외면하고 죄의 결과만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변명으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해결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요 14:6). 하나님은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라는 물으심으로 변명에 가려진 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3:11). 오늘도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주님께 나가면 쉼을 얻습니다(마 11:28). 회개하면 주홍같이 붉은 죄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 약속하신 대로(사 1:18) 변명이 아닌 회개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용서받는 길입니다.

(3)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와를 ‘또 다른 나’라고 불렀던(2:23) 아담은 죄를 지은 후에는 ‘그 여자’라고 부릅니다(3:12). 부부는 한 몸이기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곧 자기를 탓하는 것이며 창조주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됩니다. 하와 역시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3:13) 둘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죄가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뿐 아니라 부부관계까지 단절되게 하며 결국 모든 관계를 끊어지게 합니다.

(4) 피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책임 전가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회개입니다(마 4:17). 우리의 할 일은 죄를 인정 즉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대가를 감당할 능력이 없기에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나를 돌아보며 오늘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갈보리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금주의 암송 말씀

창세기 3:19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